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현대미포조선, 868억원 규모 P/C선 2척 계약 수주

현대미포조선, 오세아니아 선주로부터 868억원 규모 석유제품운반선 2척을 수주함. 인도기한은 2023년 7월말임. (한국경제)

Yangzijiang poised to scoop LNG-fuelled containership deal worth more than \$1bn

중국 Yangzijiang Shipbuilding이 Seaspan과 105억달러규모 7,000TEU급 LNG추진 컨테이너선 10척 건조계약을 곧 체결할 예정임. (Tradewinds)

피더 '컨'선 운임 기고만장

중국-영국 항로 2,000TEU급 피더 컨테이너선 용선료가 약 10만달러/일 수준임. 최근 항만 체선현상과 운임상승에 기인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Capesize bulkers may see \$40,000 per day amid 'healthy' iron ore and coal volumes

철광석 및 석탄 수요로 Capesize 벌크선 스팟 운임은 40,000달러/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Capesize선은 아직 소형 벌크선에 비해 낮은 가격에 거래됨. 중국의 탄소배출규제의 강화정도가 최대 변수임. (Tradewinds)

해운 multi-year 업사이클 시작

영국 Tufton Oceanic Assets에 따르면 해운산업이 상승 사이클의 초입에 들어섰고, 선사들이 모든 해운 시장에 걸쳐 자본을 재순환시킬 것이라고 보도됨. 특히 벌크선, 컨테이너 시장의 수요 증가, 항만체선에 집중함. 내년 컨테이너선 시장은 19년보다 더더욱 좋을 것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6년 만에 공모채 시장 화려한 복귀... 'BBB급 저력' 보여준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은 500억원 회사채발행에 2,090억원 몰려 '흥행 성공'했다고 보도됨. 투자수요를 감안해 회사채 발행 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대함. 조달 자금은 친환경 선박 프로젝트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한경Business)